

-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개인 소견을 반영한 것이며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년 1월

김광익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이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창용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

I. 연구의 목적 및 DB의 구축

- 연구의 목적
- DB 구축 과정
- 입시제도의 변화
-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함의

2

연구의 목적

- “실증분석에 기초한 교육개혁”의 필요
- 1970년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기록카드를 이용한 **Data Base** 구축
- 학부모의 학력, 직업, 거주지역 등이 입학 가능성에 주는 영향 분석
- 학부모의 학력, 직업, 거주지역 등이 입학 후 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시제도의 목적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의 선발임.
향후 동창회 자료를 연결하여 졸업 후 직위와도 연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정책 함의 도출

DB 구축

- 원 자 료 : 1970년~2003년까지 입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학생기록카드
보조자료 : 학사과 (전산화된 성적자료)
한국교육연감 (출신고등학교주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 학력별 소득) 등
- 학생기록카드를 수작업을 통해 **DB화**
- 자료수: 1970년~2003년까지 14,917명 중 12,538명 입력.
입력률 : 70년대 초 50%, 80년대 70%, 80년대 이후 100%
2002년 이후 91%로 떨어짐.
(계열별 모집으로 과별 이전 과정에서 누락 발생)

학생기록카드의 예 (90년도)

The image shows a sample of a student record card for the year 1990. The card is a large grid with multiple rows and columns. The top section is enclosed in a red box and contains fields for name, date of birth, and sex. The middle section is a large grid for academic records, with columns for subjects and scores. The bottom section is a smaller grid for additional information, with columns for various categories. The card is labeled '가' (A) in the bottom left corner and '5' in the bottom right corner.

DB의 주요 변수

학적 변수	년도, 대학, 학과
인구학적 특성 변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 학번, 신장, 체중
주소관련 변수	원주소, 본적, 출신고등학교주소
입학형태 변수	입학형태
성적 변수	
가족변수	가족 수, 가족의 생존여부 · 학력 · 직업 · 소득
재산변수	부동산 · 동산, 가구월수입, 학생주거환경, 학비조달
휴학 및 군대 변수	휴학여부 및 사유, 일시

- 총 107개 변수 입력
- **재산 및 소득 변수**의 경우 자료 수가 부족하고 년도별로 학생카드 기록방식이 크게 달라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소,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소득의 대용변수(Proxy)로 사용함.**
- 서울대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설문조사와 비교 결과 본 분석 자료가 대체적으로 **서울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6

입시제도의 변화

1. 1945 ~ 1953 : 대학별 단독시험
2. 1954 : 대학입학 국가 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병행
3. 1951 ~ 1956 : 대학별 단독시험, 무시험 전형 병행
4. 1962 ~ 1963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5. 1964 ~ 1968 : 대학별 단독시험

대학별 단독시험기
(1945-68)

6. 1969~1980 :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7. 1981 : 대학입학 예비고사, 고교내신

대학입학 예비고사기
(1969-81)

8. 1982~1985 :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내신
9. 1986~1987 :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10. 1988~1993 :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병행

대학입학 학력고사기
(1982-93)

11. 1994~1996 : 수능, 대학별 고사, 고교내신
12. 1997 ~ 2001 : 수능, 대학별 고사, 학생부(새 대학입학전형제도)
13. 2002 ~ 2004 : 수능, 대학별 전형,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기
(1994-2004)

*1969: 중학교 무시험 제도 시작, 1974: 고교평준화 제도 시작

7

주요 연구결과 요약 I

- 서울 지역 premium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나 1970년대에 비해 격차가 축소됨: 광역시 위상의 상대적 증가가 원인.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음.
- 강남8학군과 기타 지역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고졸에 비해 대졸학력 학부모 premium은 오히려 증가함.
- 지역 premium의 대부분은 학부모 학력 premium으로 설명 가능함. 그러나 학부모 학력을 통제하여도 강남8학군 지역 premium은 존재하나 최근 감소 추세를 보임.
- 고소득 학부모 premium은 증가추세에 있음. 과거 높은 premium을 가졌던 교직, 공무원 학부모 premium은 안정적인 거나 감소 추세에 있음. (명예보다 소득이 중요?)

8

주요 연구결과 요약 II

- 입시제도의 변화는 지역, 직종, 학력 premium에 일시적 효과만을 가짐. 제도 변화 1년 후 곧바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임.
-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경우 입학률이 높음. 그러나 입학 후 성적에는 관계 없음. (전업주부의 역할은 입학 전까지만!)
- premium이 높게 나왔던 집단 (고소득 고학력 부모, 강남8학군 학생)의 입학후 성적이 높음. (저소득계층의 고시 선호 현상?)
- 고소득 고학력 부모를 가진 여학생 입학률이 남학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함.
- 입학 후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0.25 (총점 4.3) 높음. 그러나 2000년 이후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9

정책 함의

- 실증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평가 및 수립 필요성. (예: 면접, 논술 제도 등의 효율성 검증 등)
- 지난 30년간 교육제도 변화가 저소득층의 서울대 입학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움. 오히려 고학력, 고소득 학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입학률이 증가함. (평준화 + 쉬운 수능의 결과?)
-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 효과만을 가짐. 입시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입시제도는 교육의 내실화, 교육열의 생산적 활용 등에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장학제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통계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실증분석을 통한 논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서울대 내 학과별 학생기록의 표준화 필요 / 졸업 후 직업 선택 등과의 연계 분석 필요

10

II.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

- 연구목적과 분석자료
- 거주지역이 입학에 미치는 영향
 -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입학률
 - * 강남 8학군 입학률
 - * 대도시(영호남, 충청지역) 입학률

11

연구목적과 분석자료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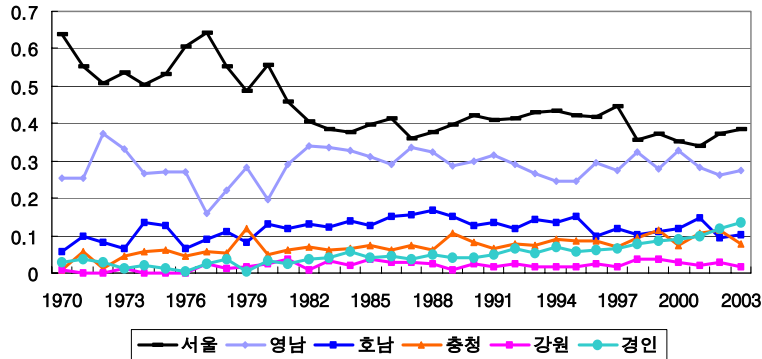
-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 특성 파악
 - * 지역별 편중 현상이 악화되었는가?
 - * 도시-비도시, 수도권 내 강남8학군 premium의 존재 여부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 1970~2003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입학생 중 출신학교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 11,910명 (전체 87%)
- 지역분포 기준은 입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역 (특목고의 경우는 입학생의 원주소 기준분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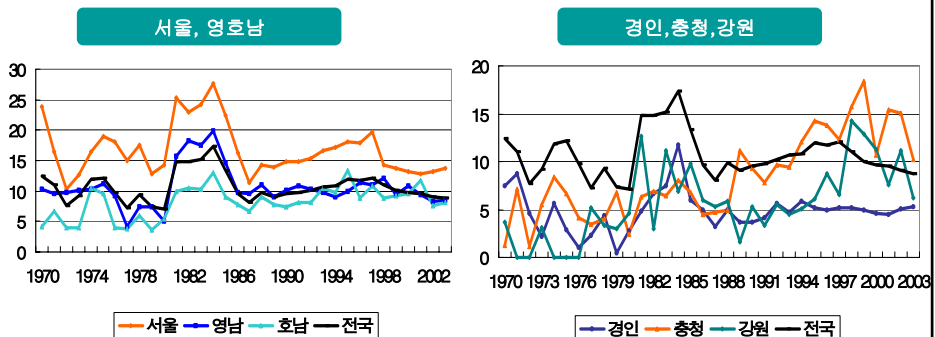
1-1.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지역별 분포



- 전기간 평균: 서울(41.9%), 부산(10.3%), 대구(7.2%), 경남(7.0%), 전북(4.7%). 단, 졸업생 수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비중임에 유의할 필요.
- 서울지역 입학률 비중 하락시기와 입시제도 변화시기의 거의 일치
- 서울 이외 지역 비중이 안정적이나 다소 증가하는 추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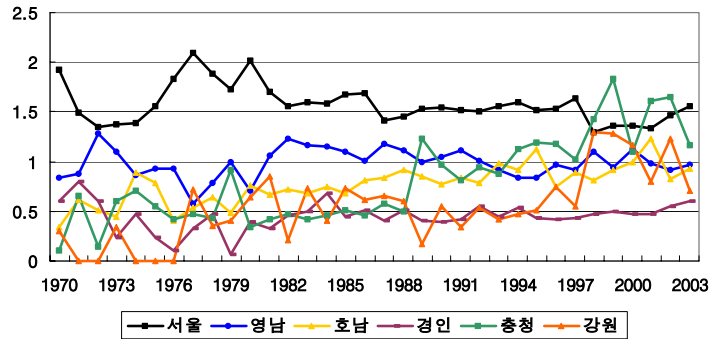
1-2. 졸업생 10,000명당 사회대 입학생 수



- 졸업생 수로 통제된 후에도 서울지역 입학생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 사회대 입학정원의 변화에 따른 입학률 변화는 조정되어 있지 않은 그림임.
- 수능시험과 고교내신제가 실시된 이후 영호남 격차는 거의 없어짐.
- 경인, 충청, 강원 지역의 입학생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짐. (강원의 경우는 졸업생 수 감소의 영향이 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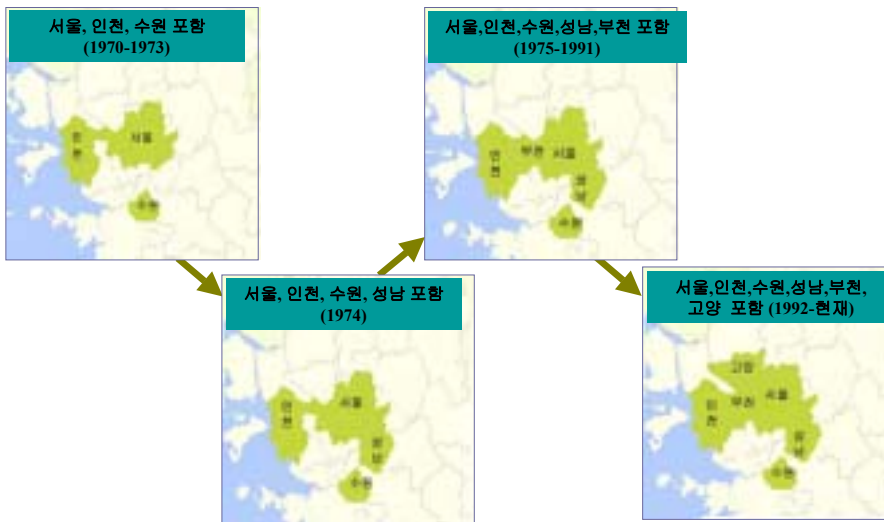
1-3. 전국 대비 지역별 입학률 비교



- 입학정원의 변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전국 평균으로 나눈 지역별 졸업생 10,000명당 입학률 비교.
- 서울지역 80년 이후 전국 평균의 1.5~1.6배.
- 1980년대 이후 서울과 영호남 격차 안정적으로 유지됨.
- 충청, 강원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나 표본 수 및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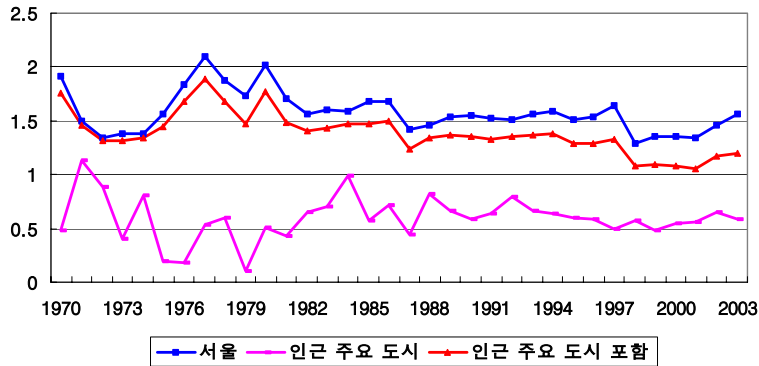
15

2-1. 서울 및 수도권 지역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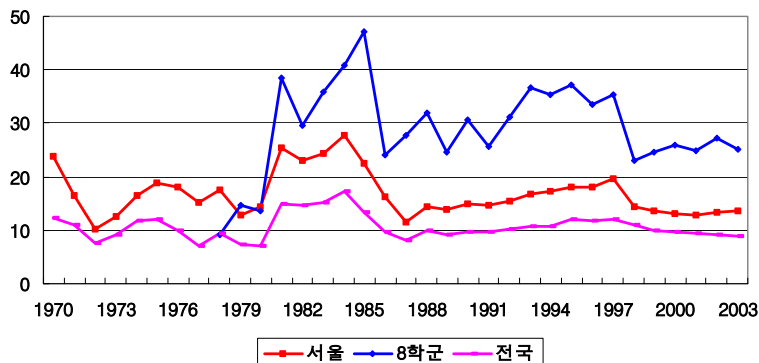
2-2. 수도권 지역 전국대비 입학비율



- 인근 주요도시의 입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추정됨.
- 따라서 서울 인근 주요도시를 서울에 포함할 경우 서울지역 입학률은 낮아지나 전반적인 추세 변화에는 변화 없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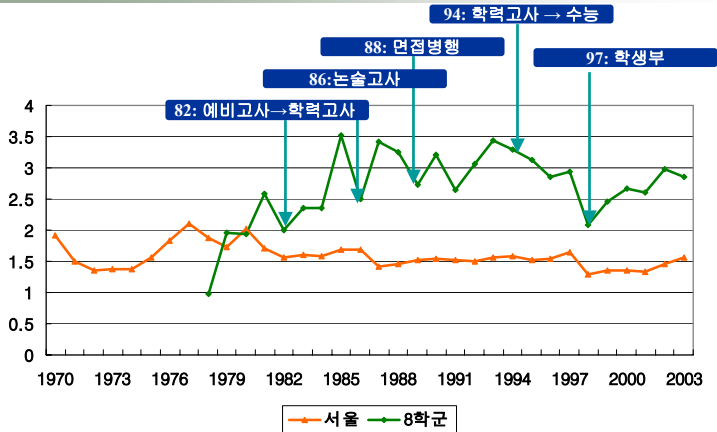
3-1. 강남 8학군 졸업생 만 명당 입학생 수



- 강남 8학군의 우위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정원 증대효과로 입학생 수가 급등한 81~85년 강남 8학군 출신 입학생 수가 전국 및 서울 전체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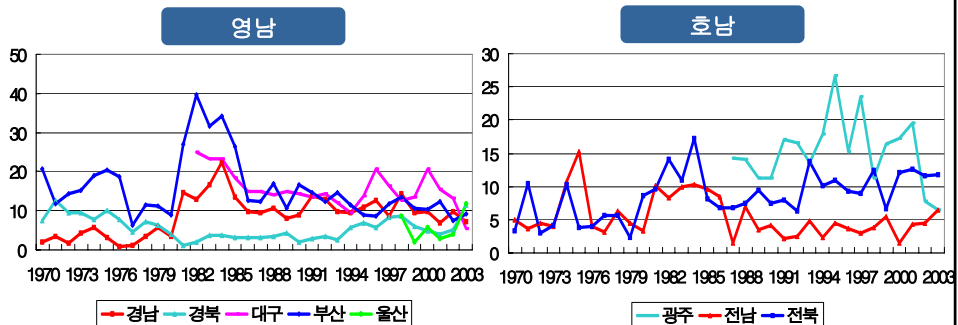
3-2. 강남 8학군 전국 대비 입학 비율



- 80년대 이후 서울의 전국 대비 입학비율은 평균 1.5인 반면 강남8학군은 2.5를 상회하고 있음.
- 입시제도 변화가 강남8학군 우위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키나 제도 변화 1년 후에는 효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임. (사교육의 놀라운 적응력의 증거?)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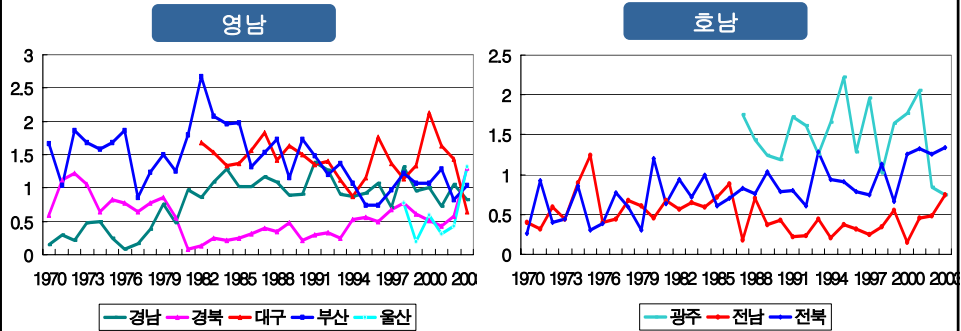
4-1. 영호남, 충청지역 대도시 효과 : 졸업생 만 명당 입학생 수



- 서울에서 강남8학군 우위가 존재했듯이 지방에서도 대도시(광역시) 지역의 우위가 존재함. 충청 지역도 마찬가지임.
- 광역시 간에는 만 명당 10~20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0

4-2. 영호남,충청지역 전국 대비 입학 비율



- 울산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의 입학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
- 최근 광역시가 없는 전북,충북,경남의 입학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각각 전주, 청주, 마산 등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됨.

21

소결

서울 및 대도시 편중 현상 존재

- 서울 이외 광역시 지역 입학률이 전국 평균 상회.
(상회폭도 상당히 유사)
- '서울-비서울'보다 '도시-비도시' 구분이 중요함을 시사
- (지역별 격차는 대부분 학부모의 학력 격차에서 발생함)

입시제도 변화의 효과는 일시적임

- 입시제도 변화시기와 맞물려 서울 및 강남8학군 입학률 다소 하락. 그러나 곧 회복되는 경향.
- 사교육의 적응력이 정책담당자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22

III. 서울대 사회대 학부모 학력이 입학에 미치는 영향

- 연구목적과 분석자료
- 학부모의 학력과 입학률
- 지역별 입학률 편차에 대한 해석

23

연구목적과 분석자료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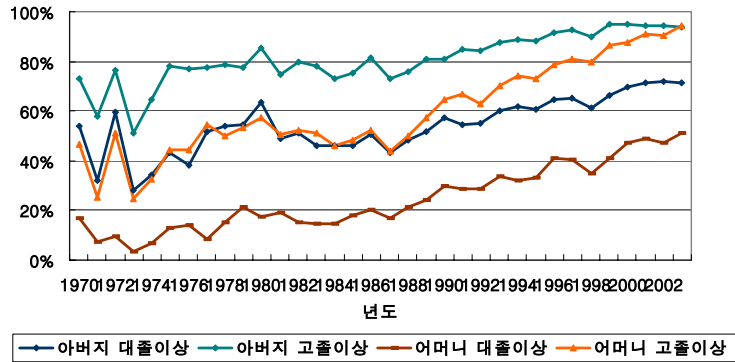
- 부모학력과 입학률과의 관계
- 학력격차를 감안한 지역별 입학률 비교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 졸업 기준으로 부모의 최종학력 정의
 -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이상
- 학부모 학력 자료 누락
 - 누락비중: 70년대 40%, 80년대 14%, 90년대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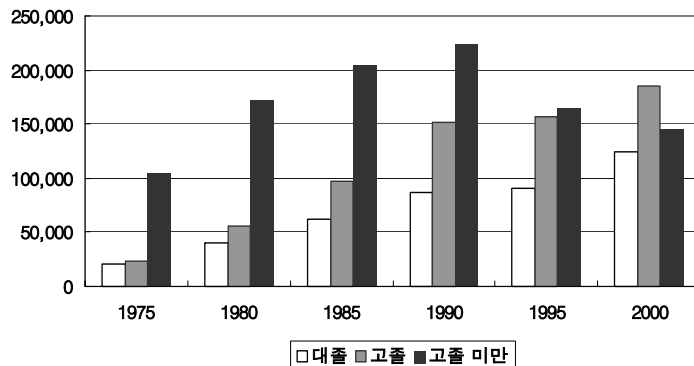
1-1.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부모의 학력분포



-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입생 학부모의 고학력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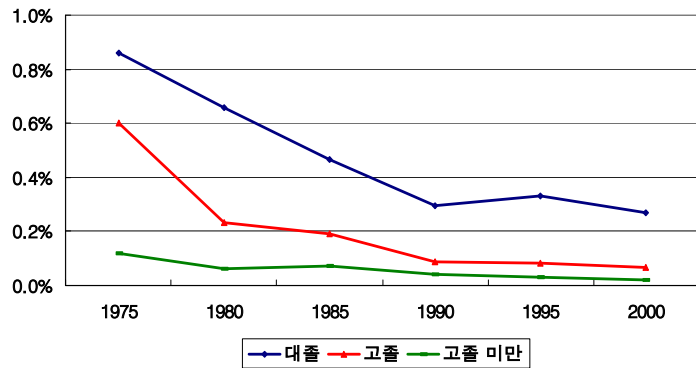
1-2. 전체 수험생 아버지의 고학력화



- 1975-2002년 기간 대졸학력 아버지를 둔 수험생은 5.8배 증가
- 고졸학력 아버지를 둔 수험생은 7.9배
- 고졸 미만 90년대 이후 감소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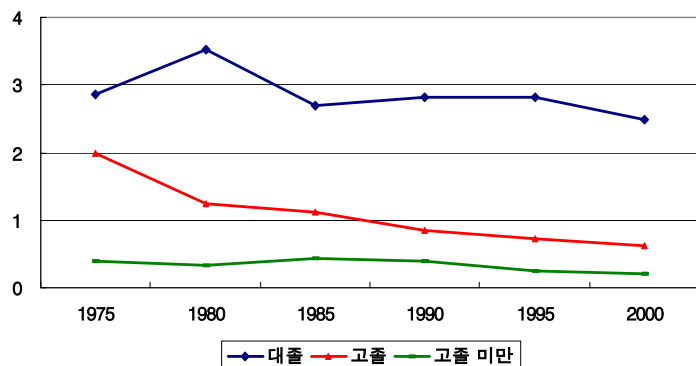
1-3. 아버지 학력별 입학률 추정치



- 아버지 학력별로 입학률에 상당한 격차
- 학력과 무관하게 하락 안정화 추세(수험생증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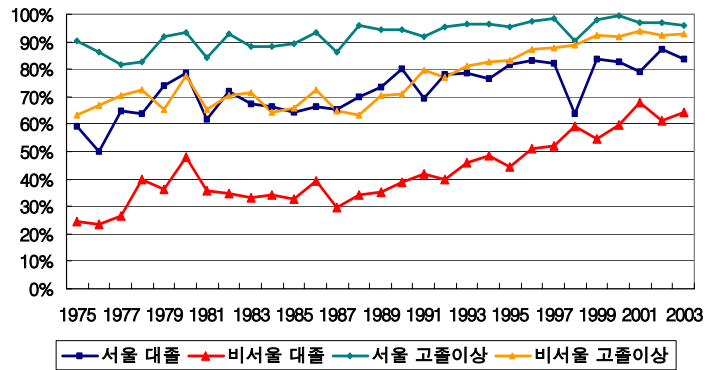
1-4. 전체 평균 대비 아버지 학력별 입학률 격차



- 대졸/고졸 아버지를 둔 수험생 입학률 격차 확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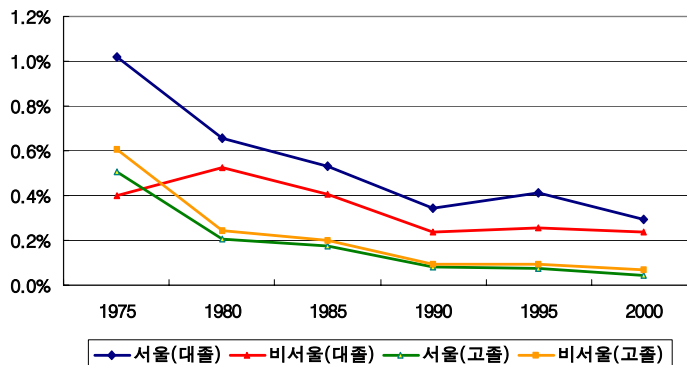
2-1. : 지역별 입학생의 아버지 학력분포: 서울 vs 비서울



- 서울출신 입학생 가운데 대졸 학력 아버지의 비중은 높은 경향
- 서울 인구에서 고학력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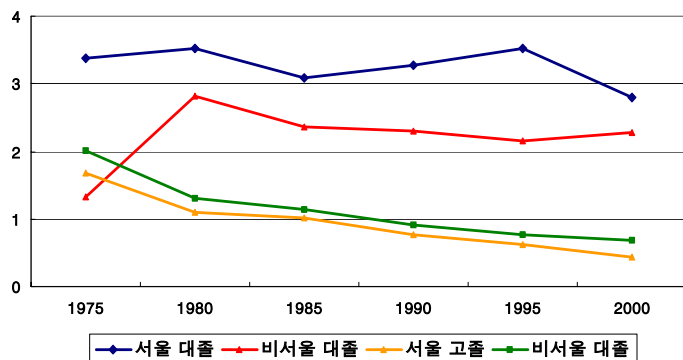
2-2. 아버지 학력별 입학률의 지역격차: 서울 vs 비서울



- 고졸 아버지의 경우 서울-비서울 격차는 미미
- 반면 대졸자의 경우 서울의 입학률이 높아 서울 프리미엄이 대졸 아버지에 집중

30

2-3. 정규화된 아버지 학력별 입학률의 지역 격차



- 대졸의 경우 서울이 크게 높지만 고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이 다소 낮은 편
- 결과적으로 학력 프리미엄은 서울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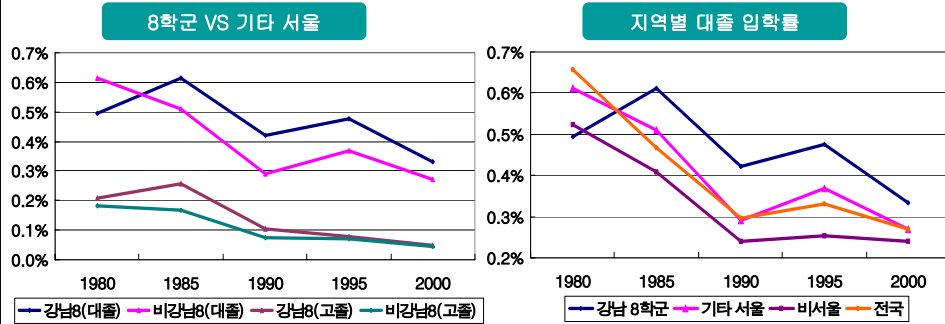
31

2-4. 지역 프리미엄과 학력 프리미엄: 서울/비서울

	서울프리미엄($R_{\theta t}^k$)		대졸 학력 프리미엄($E_{\theta t}^j$)	
	아버지 대졸	아버지 고졸	서울 지역	비서울 지역
1975	1.55	-0.16	1	-0.34
1980	0.26	-0.17	2.24	1.14
1985	0.3	-0.11	2.02	1.06
1990	0.43	-0.17	3.33	1.52
1995	0.64	-0.21	4.76	1.79
2000	0.23	-0.35	5.31	2.37

32

3-1. 서울지역 아버지 학력별 입학률: 8학군 vs 기타



- 8학군-기타 서울 격차는 대졸학력 아버지에서 발생
- 고졸학력 아버지의 경우 8학군-기타 서울 격차 미약
- 대졸 아버지의 경우 8학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입학률은 유사

33

3-2. 8학군 프리미엄과 학력 프리미엄 (서울)

	강남8학군 프리미엄(R_{8t}^k)		대졸 학력 프리미엄(E_{8t}^j)	
	아버지 대졸	아버지 고졸	강남 8학군	기타 서울지역
1980	-0.43	0.15	0.65	2.36
1985	0.17	0.53	1.32	2.03
1990	0.45	0.42	3.02	2.93
1995	0.29	0.08	5.17	4.18
2000	0.23	0.06	5.82	4.86

34

4. 학력분포를 감안한 지역 효과

	서울 지역			비서울 지역
	전체	강남 8학군	기타 서울	
	0.191	-	-	-0.153
1980	0.055	1.151	-0.042	-0.040
1985	0.072	0.516	-0.002	-0.038
1990	0.075	0.480	-0.087	-0.043
1995	0.166	0.435	0.036	-0.093
2000	0.037	0.236	-0.047	-0.018

- 부모 학력격차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여도 상당한 수준의 8학군 프리미엄 존재 (sample selection 가능성: 교육열이 강한 부모의 강남 유입)
- 다만 8학군 프리미엄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

35

소결

학력프리미엄 존재

- 부모학력에 따른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

지역프리미엄은 고학력 부모에서 부각

- 지역편차는 대졸 학력 아버지의 자녀 입학률에 집중
- 고졸 이하의 경우 지역별 편차 미미

실질적 지역 편차는 강남 8학군 vs 나머지 대한민국?

- 학생 능력에 차이가 존재
- 소득 격차에 의한 교육비 지출 격차
- Sample selection, 동료와의 경쟁을 통한 학습욕구 증대효과

36

부표

소득 수준별 자녀1인당 교육비 지출 추정치

	전체	가구소득 수준 분위(quintile)				
		1	2	3	4	5
초등학생	126.3 (8.5)	41.1 (7.7)	115.3 (9.3)	113.4 (11.1)	200.6 (15.7)	246.1 (31.4)
중학생	190.5 (9.6)	43.1 (8.8)	115.7 (10.4)	131.5 (12.6)	201.8 (18.5)	345.5 (33.3)
고등학생	273.6 (9.6)	64.3 (10.1)	115.5 (10.7)	126.4 (12.9)	227.5 (16.2)	562.3 (33.6)
전문대학생	284.6 (17.0)	139.1 (23.7)	192.3 (20.7)	200.4 (23.8)	222.5 (26.4)	253.9 (53.9)
대학생	305.9 (12.5)	63.4 (22.7)	184.5 (17.4)	176.3 (17.4)	239.2 (20.9)	329.2 (36.3)
대학원생	296.0 (50.6)	137.4 (75.6)	192.9 (64.1)	189.4 (79.3)	254.5 (81.8)	361.7 (132.6)

자료 : 유경준, 김대일(2003).

37

IV. 서울대 사회대 학부모 직업이 입학에 미치는 영향

- 연구목적 및 분석기준
- 입학생 부모 직업 분포
- 입학을 추정 모형 및 직종 자료 연계
- 직업별 자녀 입학률 비교

38

연구목적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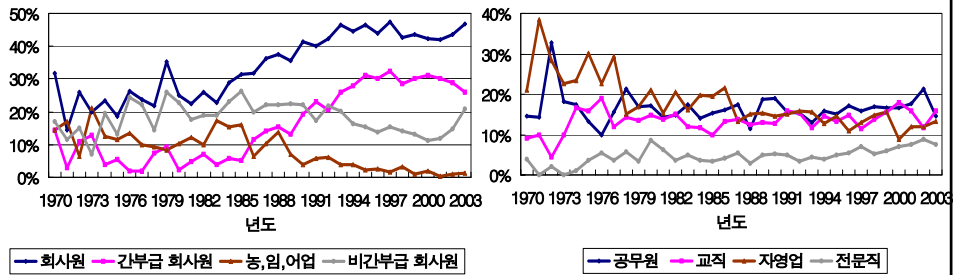
-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 분석
- 직업을 매개로 소득수준의 격차가 입학률에 주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

39

직업분류

직업분류		설명
공무원	4급 이상	서기관급 이상, 영관급 이상 군인
	5급 이하	사무관급 이하, 부사관
	구분불능	공무원임을 알 수는 있으나 몇 급인지 확실치 않은 공무원
교직	교수	.
	교사	.
전문직		변호사, 판검사, 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등
회사원	간부급	대기업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이사급 이상
	일반사무직	간부급 이외의 사무직
	생산직	생산직 회사원, 그에 준하는 직업
	구분불능	직급이 확실치 않은 회사원
자영업		.
농,임,어업		.
학생		.
주부		.
무직		.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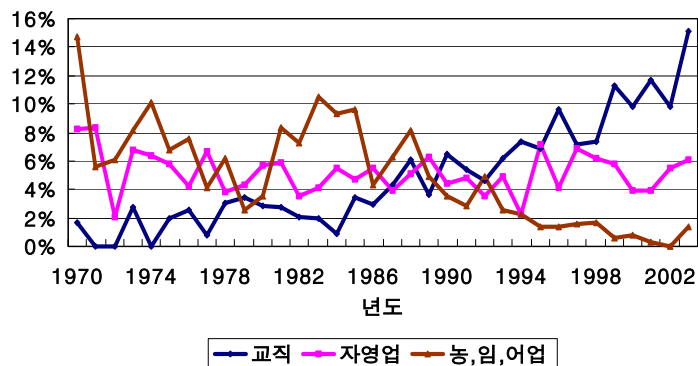
1-1. 입학생의 아버지 직업 분포



- 농,임,어업 비중은 70년대 12%에서 90년대 이후 2%로 급감
- 간부급 회사원은 확연한 증가 추세
- 공무원(16.5%), 교직(13.4%) 비중은 안정적
- 자영업 비중 감소세, 전문직 비중 증가 추세

41

1-2. 입학생의 어머니 직업 분포



- 어머니의 대부분이 주부(77%)
- 교직 비중이 85년 이후 빠르게 증가, 농,임,어업 1%미만으로 하락

42

2-1. 입학생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연계: 고소득직군의 재정의

1985-1993 경제활동인구 자료에서의 고소득직군	서울대학교 자료에서 고소득직군	1994-2000 경제활동인구 자료에서의 고소득직군	서울대학교 자료에서 고소득직군
01. 자연과학자 및 자연과학 관련직 기술공	전문직	11. 입법, 고위정부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05. 생명과학자 및 관련직 기능공	전문직	12. 법인 관리자	간부급 회사원
06.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직 종사자 I	전문직 <i>사무직 회사원</i>	13. 종합 관리자	간부급 회사원
07.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직 종사자 II	전문직 <i>사무직 회사원</i>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전문직
08. 통계학자, 수확자, 전자계산, 조직분석자 및 관련직 기능공	전문직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전문직
09. 경제학자	전문직	23. 교육전문가	교수 <i>교사</i>
11. 회계 종사자	전문직	24. 기타 전문가	전문직
12. 법무 종사자	전문직		간부급 회사원 <i>사무직 회사원</i> <i>기타</i>
13. 교직자	교수 <i>교사</i>		
14. 종교관계 종사자	전문직	* 붉은 색 흘림체로 된 항목은 본 연구의 고소득직군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이나, 경제활동 자료의 직종분류가 더 이상 세분될 수 없어 경제활동자료에서 구분되지 않는 항목임.	
20. 입법종사자 및 정부 관리직 종사자	간부급 회사원 4급이상 공무원		
21. 관리자	간부급 회사원		
30. 사무원 감독자	간부급 회사원		
35. 수송 및 통신사업 관리원	4급이상 공무원		

43

43

2-2. 입학생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연계: 공무원 및 교직

공무원

1985-1993 경제활동인구 자료에서의 공무원	서울대학교 자료에서의 공무원
20. 입법 종사자 및 정부 관리직 종사자	4급 이상 공무원
31. 정부 행정관	5급 이하 공무원
35. 수송 및 통신사업 관리원	4급 이상 공무원
58. 보안 서비스 종사자	5급 이하 공무원

1994-2000 경제활동인구 자료에서의 공무원	서울대학교 자료에서의 공무원
11. 입법 고위정부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34. 기타 준 전문가	5급 이하 공무원 <i>사무직 회사원</i>

교직

1985-1993 경제활동인구 자료에서의 교직	서울대학교 자료에서의 교직
13. 교직자	교수 교사

1994-2000 경제활동인구 자료에서의 교직	서울대학교 자료에서의 교직
23. 교육 전문가	교수 교사
33. 교육 준 전문가	교사

44

2-3. 입학률 추정 모형

- 입학률은 '그 직종에 속한 전국 학부모(Ph_t) 가운데 자녀가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한 학부모(Sh_t)의 비율'로 정의
그러나 Ph_t 에 대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의 두 방법을 사용

-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학부모 가운데 직종 h에 속한 비중 (S^h_t/S_t)을 40-59세 전체 인구(N_t) 가운데 그 직종의 비중 (N^h_t/N_t)으로 정규화하는 방식

$$\frac{(S^h_t/S_t)}{(N^h_t/N_t)}$$

전체 수험생 학부모의 직업분포를 추정하여 직접 입학률을 구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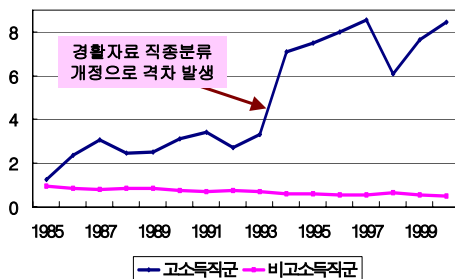
-
-

$$\frac{Sh_t^*}{Ph_t^*} = \frac{\bar{S}}{G_t} \frac{(S^h_t/S_t)}{(N^h_t/N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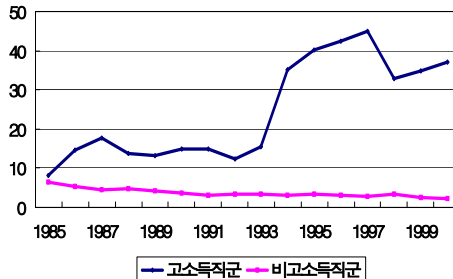
\bar{S} 는 85~2000년 사회대 정원 평균
 G_t 는 t년도 고교 졸업생 수(수험생 규모)
 N_t 는 t년도 40-59세 인구
 N^h_t 는 직종 h에 속한 40-59세 인구

3-1. 고소득직군 아버지 자녀 입학률

전국 평균 대비 사회대의 고소득직군, 비고소득직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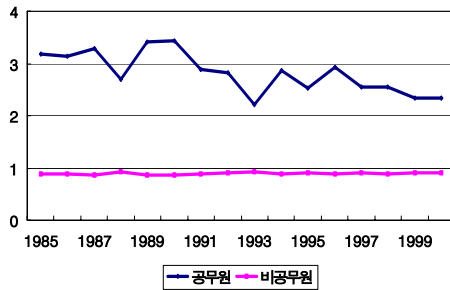
고소득직, 비고소득직군 아버지 한 명당 입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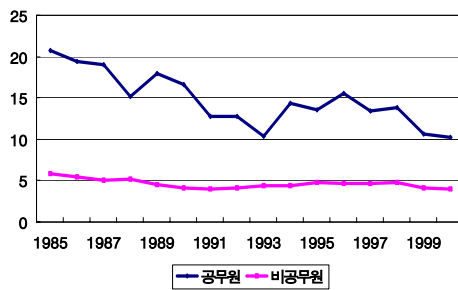
- 입학생 아버지 중 고소득직군 비중은 85년 15%에서 2002년 50%로 증가 (그림 생략)
- 입학률 추정 방법 1, 2 에서 모두 고소득직군 아버지를 둔 학생의 입학률과 비고소득직군 아버지를 둔 학생의 입학률과의 격차가 확대됨을 보여줌.

3-2. 공무원 아버지 자녀 입학률

전국 평균으로 정규화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 아버지 만 명당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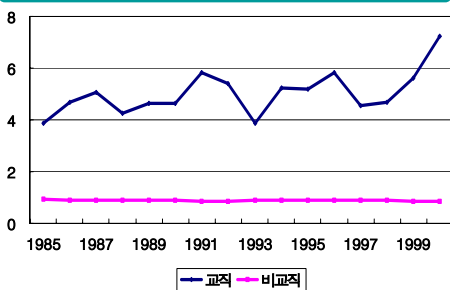


- 공무원 자녀의 입학률은 높은 편
- 그러나 공무원-비공무원 격차는 감소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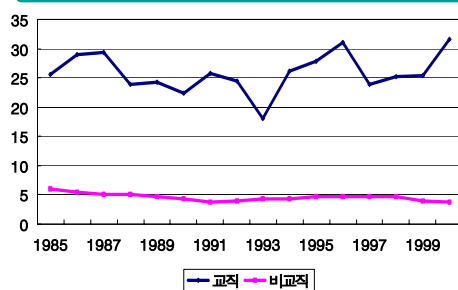
47

3-3. 교직 아버지 자녀 입학률

전국 평균으로 정규화한 경우



교직과 비교직 아버지 만 명당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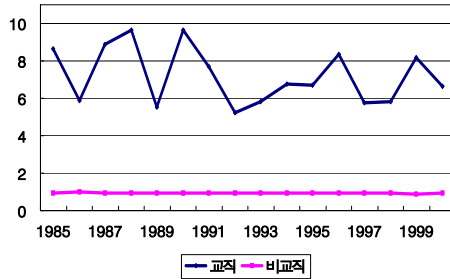


- 교직자 자녀의 입학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
- 격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고소득직군에 비해 premium이 낮은 편 (지식보다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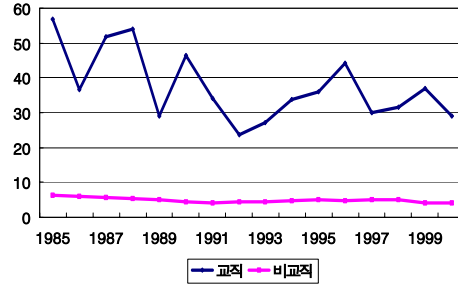
48

3-4. 교직 어머니 자녀 입학률

전국 평균으로 정규화한 경우



교직과 비교직 어머니 만 명당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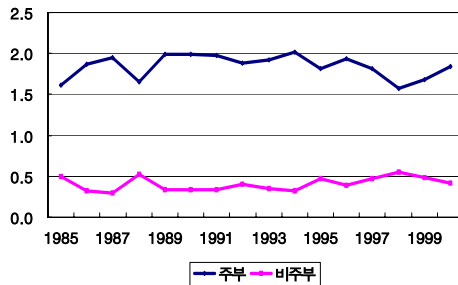


- 교직 어머니 비율은 2%(70년대)에서 12%(2000년대)로 급증
- 교직자 어머니의 자녀 입학률은 비교직자에 비해 6-7배 높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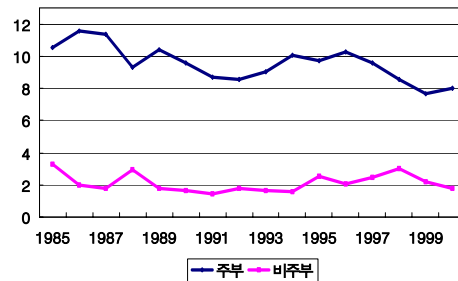
49

3-5. 주부 어머니 자녀 입학률

전국 평균으로 정규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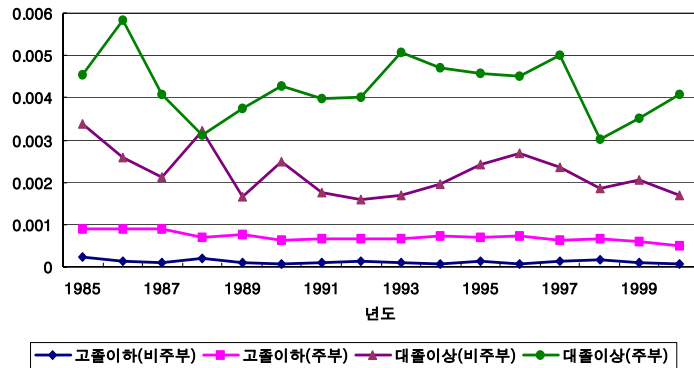
주부와 비주부 어머니 만 명당 입학생 수



- 전업주부의 자녀 입학률이 취업 주부에 비해 높은 편
- 그러나 격차는 다소의 감소 추세

50

3-6. 학력에 따른 주부 어머니 자녀 입학률



- 어머니 학력과 무관하게 전업주부의 자녀 입학률(1명당 입학생수)이 높음

51

소결

소득(직업)에 따른 입학률 격차 존재

- 고소득직군 아버지의 자녀 입학률이 비고소득직군에 비해 20배 높은 수준이며 그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
- 전업주부 자녀의 높은 입학률도 소득효과를 간접적으로 지지
 - 고소득 배우자를 가진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기피
 - 전업(교육)주부?

52

V.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성적 분석

- 연구목적
- 출신학교 및 입학 형태에 따른 성적 비교
- 출신 지역에 따른 성적 비교
- 부모의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성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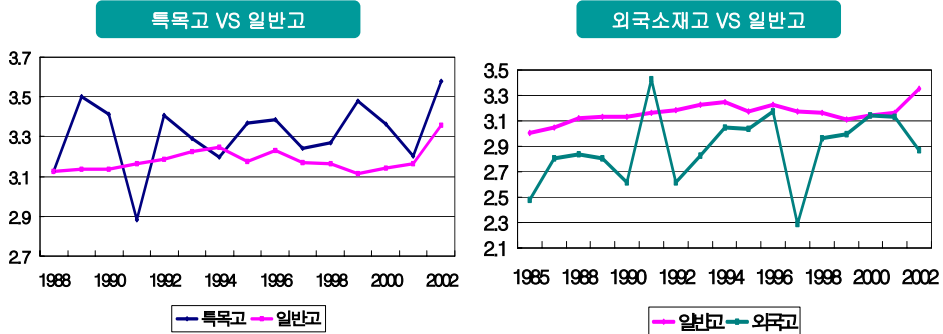
53

연구목적

- 입학률 격차와 연관 있는 변수에 따른 성적격차 분석
 -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및 직업
- 입학률 격차의 의미 해석
 - 능력 없는 학생이 고액 과외로 입학?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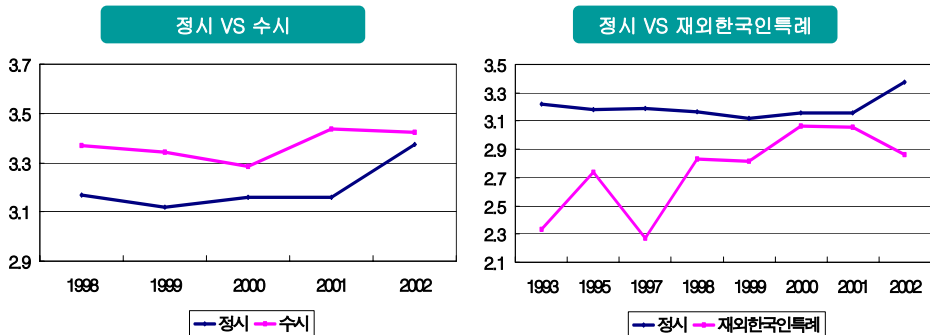
1. 출신학교 형태에 따른 성적 비교



- 일반고 출신에 비하여 특목고 출신이 평균 0.13점 높으며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0.27점 낮음.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과 일반고 성적 격차는 줄어들었음.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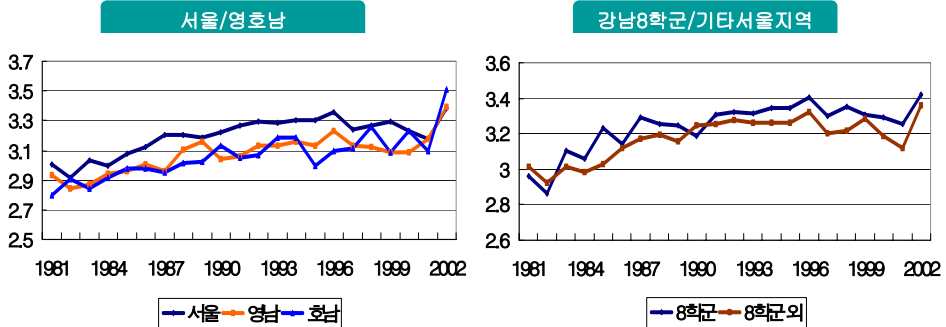
2. 입학 형태에 따른 성적 비교



- 수시 입학 학생 성적이 정시 입학생에 비하여 높은 편
- 재외한국인특례 학생의 성적은 낮은 편이나 격차는 감소세
- 입학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성적 격차는 지속되는 경향
 - 1학년 성적이나 최종성적이나 유사한 패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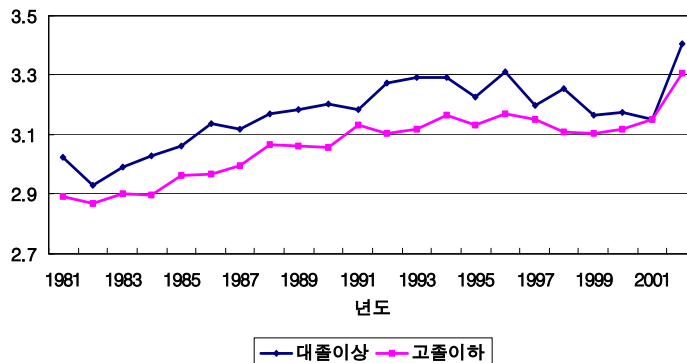
3. 출신(학교)지역에 따른 성적 비교



- 입학률이 높았던 지역출신이 성적도 높은 경향
 - 서울 지역 출신의 성적이 비 서울 지역에 비해 0.12~0.15점 높음
 - 강남8학군 출신 성적이 기타 서울 지역에 비해 0.12점 높음
 - 학점에 대한 중요도 부여의 차이? (예: 유학 등을 목표로 하는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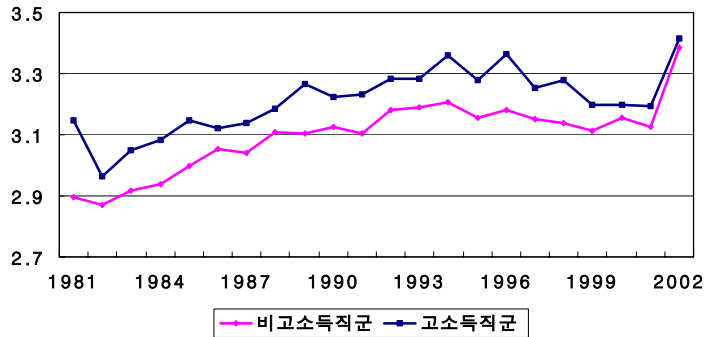
4. 부모의 학력에 따른 성적 비교



- 높은 입학률을 보였던 대졸이상 학력 아버지의 자녀 성적이 고졸 아버지에 비해 0.11점 높음
- 어머니의 경우 더 큰 격차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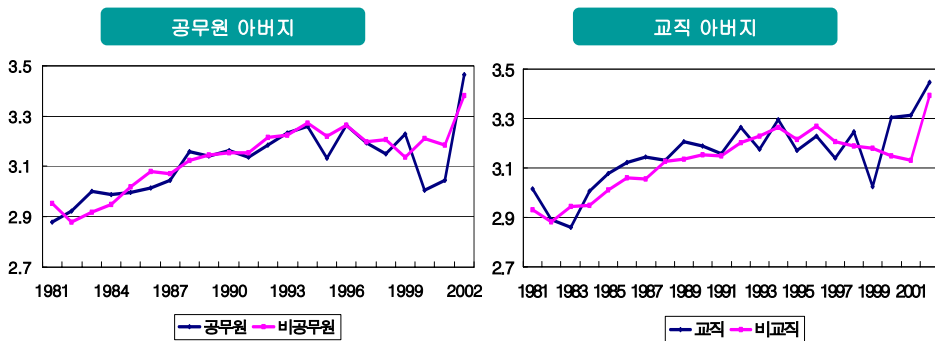
5-1. 부모의 직업별 성적 비교: 고소득직군



- 고소득직군 자녀의 성적이 비고소득직군에 비하여 0.11점 높음.
 - 유전적 요인?
 - 사교육의 영향?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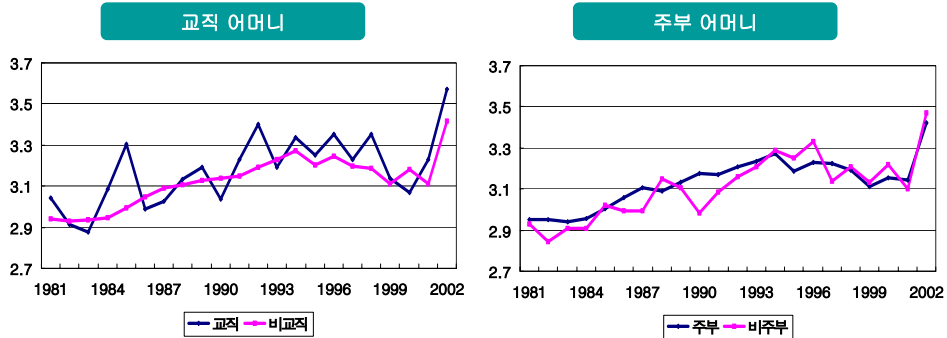
5-2. 부모의 직업별 성적 비교: 공무원과 교직



- 고소득직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공무원, 교직 자녀 성적의 경우 다른 직업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고소득직군의 성적 격차는 소득에 의한 효과를 반영할 가능성?

60

5-3. 부모의 직업별 성적 비교: 어머니



- 어머니의 경우 직업에 따른 자녀의 성적차이는 거의 없음
- 전업주부의 역할은 입학까지만!

61

소결

-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 학생 성적이 일반고에 비하여 높음
- 수시모집 학생이 정시에 비해 높고 재외 한국인 특례입학생 성적은 매우 낮으나 최근 호전.
- 높은 입학률을 보였던 서울지역(특히 강남8학군), 고학력 고소득 가정자녀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 가정 자녀의 성적은 높으나, 공무원, 교직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 성적이 높다는 증거는 없음.
- 전업주부의 역할은 입학까지만!

62

VI.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성별 분석

- 연구목적
- 사회대 여성입학 비율
- 부모 학력 및 직업별 여학생 입학률
- 성별에 따른 성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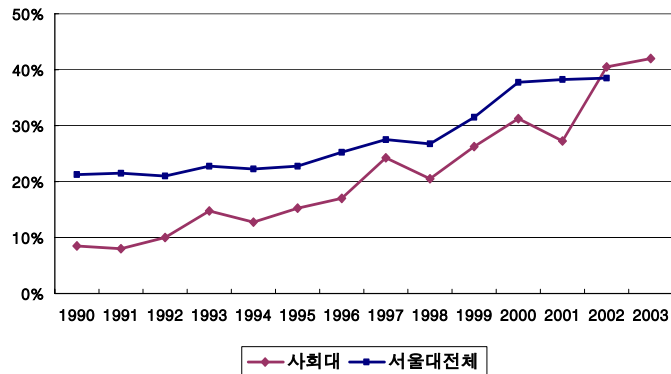
63

연구목적

- 성별 입학률의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및 직업별 비교
- 여학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검증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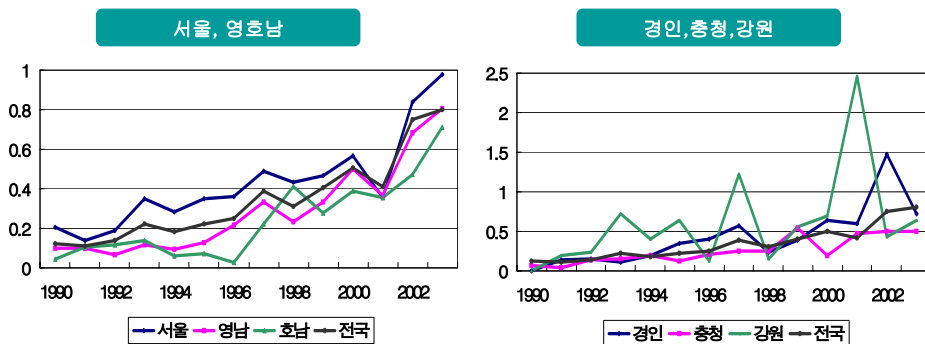
1. 서울대 전체와 사회대 여성 입학 비율



- 13년 사이 사회대 여학생 비중이 9%에서 42%로 상승.
- 서울대 전체의 경우 21%에서 39%로 상승함.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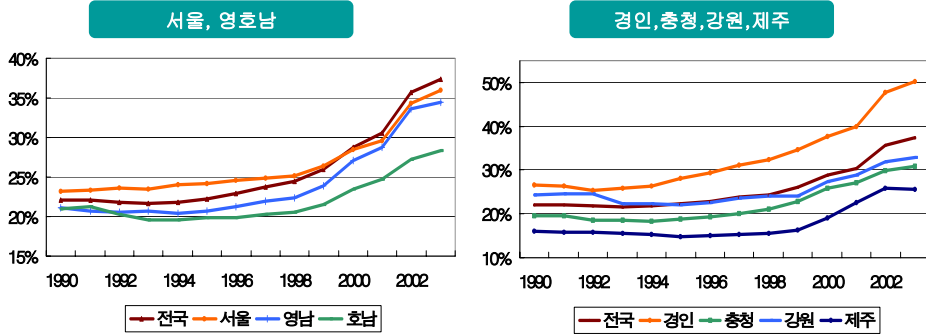
2. 졸업생 수로 통제한 지역별 여/남 비율



- 서울지역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 경인, 영남, 충청, 호남 순
- 여학생 비중이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학생에 비해 입학률이 낮은 편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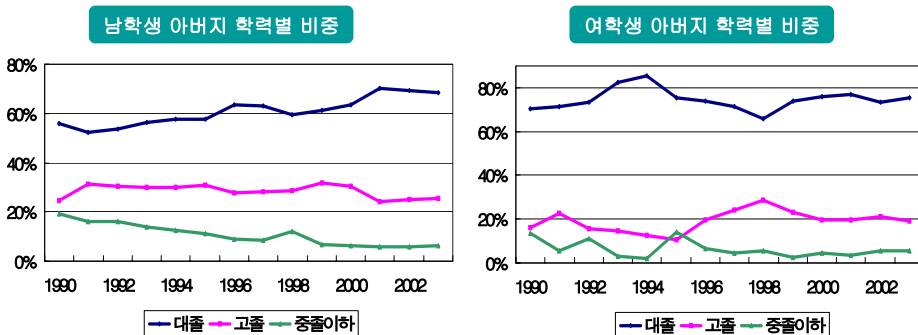
3. 지역별 여성 교원 비율



- 영호남, 충청지역의 낮은 여학생 비중은 사회적 인식에 의한 결과?
 - 이 지역은 여성 교원진출 비율도 낮은 편
- 여성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소득에 대해 더 탄력적임을 반영한 결과?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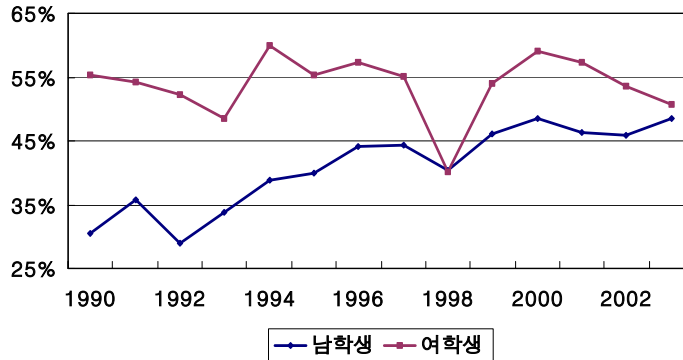
4. 입학생 성별 부모학력 분포



- 여학생 아버지 중 대졸 비중이 75%, 남학생의 경우 61%로 여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더 높음
- 고학력을 고소득과 연관시키면 성별 입학률 격차의 지역별 양상이 지역별 소득 격차에 의해 일부 발생함을 반증.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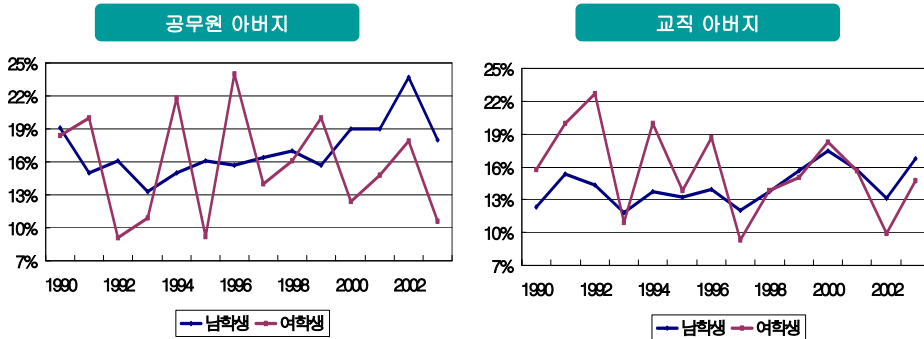
5-1. 입학생 성별 고소득직군 부모의 비중



- 여학생 중 고소득직군 비중이 높은 것은 여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소득 탄력적임을 반영할 가능성
- 여학생 부모의 비고소득직군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할 가능성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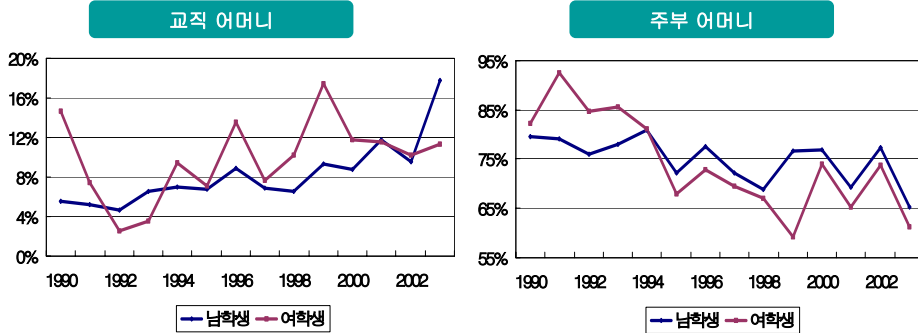
5-2. 입학생 성별 공무원, 교직부모 비중



- 공무원 및 교직의 경우 자녀 입학률의 성별격차가 미미
 - 학력분포 차이는 소득효과를 반영?
 - 공무원과 교직부모는 진보적 사고방식?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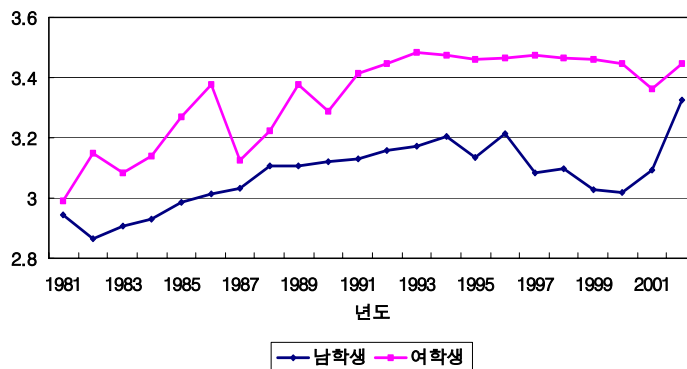
5-3. 입학생 성별 어머니 직업 비중



- 어머니의 교직 비중은 남녀학생에게서 유사
- 주부 어머니의 비중이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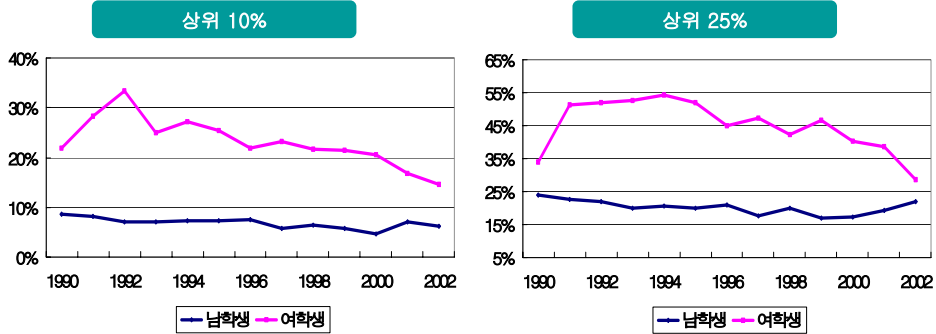
6-1. 입학생의 성별 성적



- 학점 상승추세는 90년대 후반 이후 안정세로 전환
- 여학생 평점이 남학생에 비하여 평균 0.25점 높음.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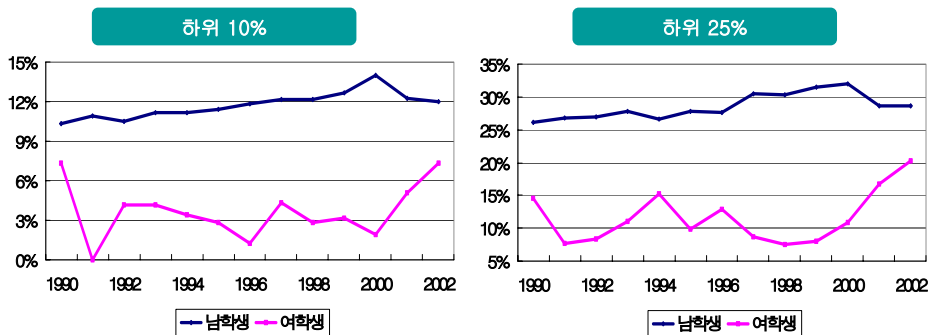
6-2. 입학생의 성별비율과 성적 : 상위10%,25%



- 상위10%, 25%에서도 여학생의 상대적 비중이 높음.
- 최근 상위권 여학생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73

6-3. 입학생의 성별비율과 성적 : 하위10%,25%



- 여학생 평균 성적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하위군 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건실한 대학생활을 하는 경향.

74

소결

소득효과에 의해 여학생 비중 증가

- 서울지역 여학생 비중 높음
- 여학생 아버지의 대졸자, 고소득 비중이 남학생에 비해 높음
- 사회적 인식변화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 존재.

여학생 성적이 높음

- 여학생 평균 성적이 남학생에 비해 높음
- 최근 남학생 성적의 개선으로 성적 격차 축소